

회생인가, 실현가능한 변제재원 마련에 달려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회생절차에 접어들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이 가능해야 한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31조). 회생을 신청한 채무자회사는 현재 처해있는 지급불능의 상황을 타개하고 채권자들의 채무를 최대한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재원을 마련해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 때의 변제 재원 마련 방법은 당연히 현실화 가능하여야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아무래도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방안이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지나 건물의 감정가를 평가해 감정가를 변제재원으로 회생계획안에 반영한다. 대부분 회생절차에 접어들 정도의 회사들은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는 매각한다. 그조

차도 어려울 경우에는 영업에 쓰이는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되 바로 세입자로 입주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Sale&Leaseback)을 취하기도 한다. 이외에 채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아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최근엔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도를 이용한 회생계획안 역시 다수 추진되고 있다. M&A 추진을 전제로 하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을 전제로 해 채무자 회사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하는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금은 투자계약 체결과 동시에 납입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5일 전까지는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잔금까지도 전부 납입해야 한다. 그래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을 경우 곧바로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의 경우 필연적으로 경영권 변동이 수반하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분할 변제가 아니라 일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채

무자 회사 또한 일거에 투자금이 확보되면서 급격한 자산 매각이나 구조조정을 동반하지 않고도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변제재원 마련에는 통상적으로 경영진의 급여 삭감, 인적 구조조정 등이 동반된다. 특히 경영진의 급여가 과다한 경우,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담당 재관부가 급여 조정을 직접 권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채무자 회사의 회생절차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들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영진들도 악화된 경영상황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결국 회생계획안 인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변제재원을 얼마나 실현가능한 방법으로 마련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리고 변제재원의 마련 방법은 각 채무자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영업의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 법원회생의 절차적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법인바른

택시가 쏘아올린 카카오 위기



**기지수첩
구남영 (산업부)**

최근 카카오택시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그룹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의 사법리스크 여파에 이어 대통령이 카카오택시 공개 저격에 나서면서 여론 악화에 방점을 찍은 것. 이에 '국민주'로 불렸던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사 주가가 연일 추락하며 개미무덤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

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석한 장관들에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다. (제재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된다"며 "이건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방안을 마련해주시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현재 카카오택시의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당국의 표적이 된 상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도 휩싸여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실질 매출이 운임의 3~4%에 불과하지만 이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공정위도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행위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서비스가 가입한 택시가 우타·타다 등 다른 플랫폼과 가맹을 맺으면 배차 콜을 끊는 등 '콜 차단' 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카카오택시 사업은 그룹의 황금알에서 '계륵'으로 변모하고 있다. 2년 전 다진 카카오의 위기에 카카오택시가 중심에 있었다. 카카오 택시 호출 서비스의 가격인상이 택시요금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불만이 커진 것. 영세사업자와 서민경제가 얽혀있는 만큼 민감도가 높다는 점도 한몫했다.

문제는 카카오가 지난 10여년 동안 급격히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준법시스템과 경영진의 의식 등이 기초체력을 충분히 기르지 못했다는 점이다. 외형은 급격히 성장했지만, 내부 시스템은 스타트업 수준에 머물면서 대형 위기를 불러왔다. 특히 카카오 사업 분야는 골목상권 침해라는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준법경영을 중시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카카오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법경영을 감시할 기구를 마련하고, 진정한 대기업 수준의 내실을 다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건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본다.

/koogija_tea@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1월 6일 (음 9월 23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이 없다. 48년생 이익은 없지만 각박해져 가는 마음을. 60년생 사방으로 운이 열렸으니 미뤄둔 일을 처리. 72년생 내 말이 다 옳을 수는 없다. 84년생 한밤중에 원인을 알면 대처방법이 있다.
- 소** 37년생 리더십의 본질은 솔선수범이다. 49년생 협력의 수레바퀴가 노후를 포근하게 이끈다. 61년생 지금 이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한다. 73년생 올바른 차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85년생 오랜 기다림 끝에 좋은 소식이 오겠다.
- 로랑이** 38년생 만나는 즐거움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라. 50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비 오는 격. 62년생 유혹이 많으니 중심을 잘 잡자. 74년생 피곤한 날에 휴식이 필요하다. 86년생 남의 것을 욕심내면 내 것이 2배로 나간다.
- 토끼** 39년생 삶의 중심은 항상 자기 자신이야 한다. 51년생 흉물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63년생 취약한 날이니 반드시 메모. 75년생 사업은 나의 책임과 판단에서. 87년생 새로운 기회와 인맥으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 양** 40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52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도 좋다. 64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계획을 정리. 76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오늘 은 신중하게. 88년생 마음고생이 심하나 보답은 받는다.
- 뱀** 41년생 소문난 잔치에 가 봐도 별 볼 일 없다. 53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65년생 재혼 때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 77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을 조심하자. 89년생 마음의 문을 열고 재산 분배.
- 말** 42년생 고쳐 쓰기 힘든 것은 빨리 버려라. 54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66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무산될 위기. 78년생 내게 관계없는 일에 구설 참견 마라. 90년생 일단 하찮은 걱정은 접어 두라.
- 양** 43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피곤이 풀린다. 55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가까운 곳이라도 여행. 67년생 삶의 질이 높아져 가는데 외로운 이유는 무엇인지. 79년생 좋은 운을 실감하는 날이다. 91년생 서남쪽의 이사는 행운을.
- 원숭이** 44년생 가까이 있다고 소홀히 대하지 마라. 56년생 행복을 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라. 68년생 창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행해야 한다. 80년생 붉은 카펫 위를 걷는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 92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낫다.
- 닭** 45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57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 69년생 아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반짝인다는 것을. 81년생 일이 하기 싫으니 변명만 보이다. 93년생 바람이 불고 추위가 닥쳐오니 준비를 해라.
- 개** 46년생 자식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관하지 마라. 58년생 앞만 보고 달리면 주변을 볼 수 없다. 70년생 겉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82년생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미워 마라. 94년생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 돼지** 47년생 지출을 줄여가면서 외출. 59년생 자식이 인연을 만나니 기뻐라. 71년생 잘 쓰던 뭇사람의 판판에서 나온다. 83년생 문제아들 뒤에는 문제 엄마가 있게 마련. 95년생 책임이란 가정에서 일차적으로 그 기본과 기초를 키워나가야 한다.



김상회의四季 절기의 지혜

한로(寒露)가 지나고 곧 입동이다. 한로는 뜻 그대로 찬 이슬이다. 하늘을 지나면서 낮의 길이는 슬슬 짧아지기 시작하고 한로를 기점으로 낮과 밤의 일교차가 현저해져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니 밤의 길이는 몸으로 느낄 만큼 길어질 것이다. 인디안 썸머의 따끈한 햇살은 이제 입동 맞이에 자리를 내어주어야 한다. 절기들은 해의 길이라 불리는 황도(黃道)를 나타내는 것 이상의 의미로서 우리에게 시사하여 주는 바가 크다. 계절에 맞춰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순기능을 선물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삼월 삼짇날 즈음엔 진달래가 한창이다. 단오 때에는 창포가 흐드러지다. 중앙절에는 국화가 한창이다. 절기에 맞춰 나는 꽃이나 나무들은 그 시기의 천지의 기운을 댕박 담고 있다. 약재로도 쓰이며 생활에도 훌륭한 무기질과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식자재로 쓰인다. 특히 가을에 나는 국화 꽃잎은 채취해 말려서 차를 끓여 먹는데 심신을 평안하게 해준다. 심신이 지친 현대인들에게 해독제를 선사해주는 것이다. 때에 맞춰 사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천지 자연은 묵언으로 알려주고 있다.

특히 농업이 주된 산업이었던 그 시절에는 절기야말로 때를 놓치지 않고 씨를 뿌리고 거둬들여야 하는 계절의 시계였으니 이만한 지침서가 없다. 그러므로 때를 안다는 것은 철이 들었다는 얘기와도 상통한다. 필자의 추론으로는 대부분의 민속제로 기념되는 절기의 민속 절들은 어느 순간 중요도가 점차 낮아지는 듯하다. 무엇보다 기독교를 믿는 인구가 많이 늘면서 제사 전통이 약화하여 가고 있다. 농업이 산업적 우위를 잃어가면서 전통 민속절이나 행사 역시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저 과거의 풍습으로만 인식되는 탓일 게다. 절기, 시절의 때를 알려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 훈련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0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0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